



장흡충 이야기 <마지막회>

腸 吸 虫

(3) 피브리콜라·서울렌시스

(*Fibricola Seoulensis*)

이 순 형

이 세상에는 군중의 박수갈채를 받고 언제나 환호성에 휩싸이는 인기적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연구실에서 고독하게 일만하는 직업도 있다. 이른바 학자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연구 생활속에서도, 이들이 조용하지만 아주 격한 흥분에 싸이는 순간이 있다. 학술적으로 새로운 것, 진귀한 것을 발견하게 될때 그러하다. 마치 노다지

금맥을 찾아낸 광부의 심정이라고나 할른지!

필자가 소속한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도 얼마전 이런 소리없는 큰 함성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르아닌 *Fibricola seoulensis*라는 장흡충의 인체감염예를 세계최초로 발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F. seoulensis*라는 생소한 이름의 장흡충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하기는 1964년이었다. 당시 서울의대에 근무하고 계시던 임한중교수(현 고려의대 기생충학 주임교수)가 의대 구내에서 집쥐를 잡아 내부기생충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창자에서 처음 보는 흡충을 발견하게 되어, 서병설교수(현 서울의대학장·기협회장)와 공동으로 신종기재를 하였었다. (서울에 있는 서울의대에서 발견되었다 하여 *F. seoulensis*라 학명을 지은 것이다.)

그때 이를 발견한 당사자들도 집쥐의 장흡충 신종을 보고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다지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1982년에 이 쥐의 장흡충이 사람에게도 감염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니 실로 감개가 무량할 수 밖에!

환자를 발견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서울에 사는 25세의 남자(모도서관직원)가 1982년 7월초 복통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에 39°C정도의 고열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배가 거북하고 아프면서 설사를 여러번 하였었다. 검사결과 백혈구가 11,920, 호산구가 18%로 증가되어 있을 뿐, 다른 검사결과는 정상 범위내에 있었는데 다만 대변에서 이상한 대형흡충란이 발견되었다. 사실 이 환자를 본 교실에서 찾아내게 된 때에는 대변검사를 맡았던 검사기사가 이 흡충란을 이상히 여기고 교실에 동정(同定)을 의뢰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충란을 장흡충의 일종이라 판단하고 곧 구충제를 써서 치료를 한 결과 그 대변에서 길이가 1.5mm쯤 되는 79마리의 충체를 얻었다. 이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니 1964년에 쥐에서 찾아낸 *F. seoulensis*와 완전히 부합된다는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이 환자는 그후 증상이 다 없어지고 완쾌되어 퇴원하였다.

그렇지만 환자가 어떻게해서 이 장흡충에 걸렸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다음 문제였다. 환자로부터 과거력을 자세히 캐물어본 결과, 이 환자가 발병하기 5일전에 경기도 여주군에 놀러가서 뱀의 내장을 날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그래서 교실원들이 여주군의 같은 장소를 찾아가 뱀을 잡아 검사해보니, 과연 이 장흡충의 감염형 애벌레인 피낭유충(*metacercaria*)이 뱀의 내장, 그것도 위근처에 무수히 분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피낭유충이 정말 *F. seoulensis*의 애벌레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분리한 뒤 실험실의 흰쥐에 먹인 결과 역시 똑같은 *F. seoulensis*가 십이지장 및 공장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뱀에서 분리한 이 피낭유충이 사람에게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기 위하여 교실원 몇명이 자원하여 이 파낭유충을 먹었는데 앞서의 환자에서 처럼 복통과 설사증상이 나타났고 나중에 구충해 보니 똑같은 *F. seoulensis*의 충체가 대변에서 나왔다. 그래서 뱀이 이 장흡충증의 주요 감염원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미 *Fibricola*속의 근연종에서는 제일중간숙주가 담수산 패류이며, 제이중간숙주가 개구리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뱀이 이 피낭유충을 갖게 되는것은 아마도 개구리를 잡아먹기 때문인것 같으며 따라서 뱀은 이른바 운반숙주의 구실을 하는 것이라 추측된다. 그래서 교실원들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개구리를 잡아 검사하였는데 여기서도 근육속에 피낭유충이 많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상하였던 가설이 증명된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이 장흡충감염원은 뱀 뿐아니라 개구리도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들을 날로 먹는 일을 금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의문은 *Fibricola*가 처

음 뒤에서 발견된 것이 뱀이나 개구리가 없는 서울의대 구내라는 점이었는데, 이 의문은 곧 해명이 되었다. 당시 다른 교실에서 뱀을 수집, 연구하고 있었는데 구내에 살고 있는 쥐가 연구하고 남은 뱀의 살이나 내장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제일중간숙주를 찾아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한 *F. seoulensis*의 생활사가 다 완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이 편리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장수하려는 본능이 점점 더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갑자기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이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서 자연식이니, 건강식품이니, 강정제니 하는 미명아래 예전에는 먹지않던 별의 별것을 다 먹게 되므로, 이런 동물간에만 유행하던 기생충에 잘 감염되고 인수공통기생충증도 늘어날것이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서 이렇듯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갖고있는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 보람도 보람이려니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기생충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가는 기쁨은 여느 박수갈채나 억만금의 금전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

<필자=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 의박>